

“사람들 인식 무뎠졌지만 손님은 늘지 않네요”

● ‘수산인의 날’ 광주 전통시장 가보니

日 오염수 방류 7개월여... 회복세 불거 상인들 ‘한숨’ 지난달 4차 이뤄져... 구매자 원산지·품질 체크 ‘꼼꼼’

“매번 안전 검사와 원산지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줄어드는 손님이 늘어날 기미는 잘 안보입니다.”

1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시장 수산물 코너.

일부 상인들은 바지락, 키조개, 꼬막 등 어패류 좌판을 정리하고 또 다른 상인들은 갈치, 고등어 등 생선에 찬물을 끼얹는 등 ‘상품’을 팔기 위해 부주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무색하게도 손님은 눈에 띄지 않았다.

4월1일은 수산업·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산인의 날’이지만 이날 시장 내 수산물 코너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달리 한산하기만 했다.

20여분 동안 수산물 시장을 지나간 손

님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물건을 보다가 기만 할 뿐 구입한 ‘고객’은 없었다.

그 뒤로 또 20여분이 지나서 10여명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들어오자 상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쭈꾸미가 제철이라 많이 팔았어요”, “갑오징어가 통통하니 맛있어요. 한번 보고 가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60대 부부가 쭈꾸미 가게로 발길을 옮겼고, 열과 성을 다 한 상인의 설명에 쭈꾸미 1kg을 구매했다.

20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김모(40대·여)씨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주말에는 그나마 손님들이 있지만, 평일은 그야말로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울 뿐”이라고 푸념했다. 이어 “매번 안전 검사를 비롯해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해도 정작 구매



수산인의 날인 1일 오전 동구 학동 남광주 시장 수산물 코너가 지난해와 달리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성학 기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인다”며 “한두 달 뒤면 더워지기까지 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 쉬었다.

서구 양동시장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시장 내 반찬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지

만, 수산물 코너는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한 60대 여성은 멧게 등 어패류 가격과 함께 원산지를 물었고 상인은 “통영에서 잡았고 국내산”이라며 열심히 설명했지만 결국 구매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상인 이모(60대·여)씨는 “지난해 오염수 방류 소식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가 조금씩 회복되긴 했다”면서도 “최근에 있었던 4차 방류에 다시 손님 수가 줄어 큰일이다”고 하소연했다.

판결 2題

음주측정 거부 ‘재범’ 6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전적도 있어

음주측정 거부로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6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홍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는

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호흡을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인정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측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

포르쉐 버리고 잠적 20대, 숙취 운전 정황... 혐의 적용 못해

20시간 넘어 출석해 음주측정 불가... “행적 수사해 양형에 반영”

광주 도심에서 단독 사고를 내고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20대 운전자가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숙취 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

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 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해 경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

용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최소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어 받은 SUV 차량 운전자는 잠적 17시간 만에 나타났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을 버려두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자도 각각 3시간 넘게 잠적하다 경찰에 출석했다.

일부 운전자에 대해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

모르는 女 숙소 몰래 침입 20대 벌금형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머문 숙박업소에 침입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6시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B(20대·여)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는 등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고려,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

유세차량, 광주 동운고가 높이제한 구조물 ‘뿡’

3개월 전엔 화물차 실린 건설장비가 충돌

선거 유세차량이 광주 동운고가 높이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하

부도로를 지나던 새로운미래 광주 북구를 박병석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이 높이제한 구조물에 부딪혔다.

사고 충격으로 3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차량이 고가에 직접 부딪치지 않아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화물칸에 실린 컨테이너 일부가 걸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구조물은 지난해 12월에도 7.5t 화물차에 실린 건설장비와 부딪쳐 일부 파손됐었다. /안재영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했다. 방류량은 약 3만1천120㎥로, 일 정부는 앞으로 2년간 600여㎥를 추가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에선 안전성 검사 등을 강화했으나, 그럼에도 구매가 꺼리진다는 게 이날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서구 양동에 거주하는 강태석(67)씨는 “제철 해산물을 좋아해 시장에 자주 온다”며 “오염수 방류에도 상인들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찜찜한 건 어쩔 수 없어 동해에서 온 해산물은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 김모(60대)씨는 “생태의 경우 일본산이 제일 저렴해 주력 상품으로 판매했었으나, 오염수 방류 이후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줄어드는 매출에도 허리를 졸라대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야겠다. 갈수록 수산물 종사자로 사는 게 힘들어져 가게를 접어야 할 지 고민이다”고 하소연했다. /주성학 기자

도 했으나, 이들 중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판결 양형에 반영되도록 수사적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 /안재영 기자

영양 화물차·SUV 충돌...4명 사상

영양군 대불국가산단에서 화물차와 SUV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일 영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께 영양군 삼호읍 대불국가산단 내 한 교차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화물차와 B(60대)씨가 몰던 SUV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모두 숨졌다. B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각각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두 차량이 주변 전봇대와 충돌, 고압 전선이 끊어져 내려앉으면서 한때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양=나동호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